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562-404-0027) 로 알려주세요.

종교



### 현실을 바로 보자

## 안국선원 LA분원 개원 대한불교조계종

대한불교조계종 안국선원 LA 분원(조실 수불 스님, 총무 덕우 스님, 3115 W. Adams Blvd., Los Angeles, CA 90018)이 복원 공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1일 개원했다.

LA 안국선원은 한국불교의 정통 수행법인 간화선 세계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 12월 LA시가 역사문화기념물(Historic Cultural Monument) 258호로 지정한 '피츠제럴드 하우스'를 140만 달러에 매입했다. 이후 2016년에 공청회를 거친 뒤 복원 작업에 들어가 지난해 11월 LA시 문화재 관리국으로부터 최종 복원 승인을 받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개원을 미뤄왔다. 총 부지 면적 3만6,000스퀘어피트에 이르는 LA 안국선원 복원 사업에는 총 340만 달러가 투입됐다.

이날 열린 개원식에는 스님, 불자 등 200여명이 참석해 LA안국선원 개원을 축하했다. LA 안국선원측은 참석자들에게 30여 가지가 넘는 한국 전통 사찰요리를 대접했다.

사람이 태어나 한 생애를 무탈하게 살고 가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많은 생육 기간을 지나 정신적인 자아(自我)를 회복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또 그로부터 추출되는 사명을 얻기도 어려운 일이다.

우리가 맞는 모든것은 '현실'이라는 어휘 속에 묶여진다. 즉 실제하는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말로 표현된다. 그러므로 현실을 바로본다는 것은 부합한 안목의 마련이 없는 불가능한 것이다. 히 인생의 뿌리를 찾아야하는 불제자로서 현실을 바로본다는 것은 더욱 힘이 드는 일이다. 욕망의 포로가 되어 즐기차게 도전해나가는 사람들이 득실거리는 시대에서 바른 안목을 지니고 현실을 직시한다는 것은 힘이 든다.

자기의 성격이나 소양 또는 힘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어떤 일을 성실하게 추진해가다가 결국 임종에 드는 것이 인간의 생애이다. 성공과 실패를 떠나 과정에 의의가 있다는 것은 물론 옳은 얘기이다. 그러나 오늘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과정보다는 목표를 향해 어떻게든 그에 달성하기만을 주력한다. 그러다보면 무리를 하게되고 엉뚱한 환란을 자초하기도 한다.

바로 본다는 것은 곧 근본을 보고 지업을 버리라는 뜻이다. 어떤 일을 추진하든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지업을 보지 말고 근본을 항상 살피야 한다.

그러나 근본을 항상 살핀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이라는 상황을 바로 알아야 한다. 또 오늘이라는 상황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인간의 뿌리도 살피야 한다. 큰 뜻도 지녀야하고 그 뜻을 펴기 위해 노력도 해야 한다.



오늘을 풍미하는 현세주의는 영원이나 죽음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눈을 감추고 있다. 물질 기계 과학 등 모두가 현세주의의 산물들로 이룩된 오늘이라는 시대 속에서는 영원이나 미래 또는 죽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하고자 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모두 현세주의에 묶여서 살고 있다. 영원이나 미래를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부와 물질을 축적한다고 해도 영원한 평화는 획득하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생명의 끝날에는 축적해 나온 부와 물질은 남겨둔 채 죽음의 품에 들어 영면해야 한다. 인생은 결코 부와 물질의 축적이 전부라 될 수 없는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인생의 모습, 생명의 뿌리를 직시하시고 제행무상(諸行無常)이라고 말씀하셨다. 끊임없이, 영원히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없다는 말씀을 주신 것이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파는 삶의 바닥을 정확히 찾으라는 간곡한 부촉인 것이다. 모든 움직임이 끊임없이 진행되는 어렵다는 말씀은 결국 생명의 본분과 당처를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이다. 이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신 표명이다.

제행무상이라는 진리를 우리는 망각하고서 인생을 설계해서는 안된다. 무상하다는 것을 안다면, 신기루 같은 것을 보고 현혹되어 몸부림을 칠 수가 없을 것이다.

사람마다 사는 모습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그 삶의 근원은 결국 자아의 확대와 자아의 발견에 맥락을 두고있다. 자아의 발견을 덮어둔 삶의 전개는 훗날 자기의 끝인 임종 앞에 섰을 때 자연적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끝날을 맞는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고 자기 자신과 늘상 함께 하는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 제행무상을 진실로 본다면 우리의 실천 덕목은 보다 정화된 내용의 것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정직한 실천 덕목을 잡아 자기의 인생을 보다 건전하고 튼튼하게 엮어 모든 이웃들에게 빛을 던질 수 있는 입장에 서게 될 것이다. 이러한 빛을 지닌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많이 늘어날 때 우리의 현실은 곧 지상낙원이 될 것이다.

-보성 스님-

##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OC기독교전도회연합회(회장 신웅)는 오는 24일(월) 로스 코요테스 컨트리클럽(Los Coyotes Country Club, 8888 Los Coyotes Dr, Buena Park, CA 90621)에서 '제3회 선교사 자녀 장학기금 마련 골프대회'를 개최한다.

대회 참가비는 150달러(그린피, 점심, 저녁 식사 포함)이다. 출원인 시 2만 달러 상금을 비롯해 한국 왕복항공권, 골프용품 및 생활용품 등 푸짐한 상품도 준비했다.

이 연합회는 지난 1회(2019년) 이 대회로 마련된 장학기금으로 15명의 선교사 자녀에게, 2회(2021) 대회 후에는 52명의 선교사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했다. 올해도 50명 이상의 선교사 자녀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문의 및 참가 신청  
(562) 399-2022, (213) 500-5449  
www.ockca.org, info@ockca.org

# 라인댄스 초,중급 반

활찬인생을 위한 건강한 춤!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신나는 라인댄스! 배우기 쉽고, 심장과 관절 등에 무리없이 건강한 신체를 만드세요

**장소**  
성공회 가든그로브교회 강당  
13091 Galway St.  
Garden Grove, CA 92844  
가든그로브 아리랑 마켓 옆

**시간** 매주 수-목-금요일  
오전10시30분

☎ 문의전화 (562)760-3406 에스터 장

1441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5에 있습니다)

8		3	1		5	9		
				6		1	8	
	7			2			4	
9				1	8	4		
		5					7	6
2					6			1
		6	4				1	
5			7					9
	1				3	5		